

尹·바이든, 삼성공장서 첫 만남… “한·미 경제안보동맹 ‘엄지척”

바이든, 20일 미 공군 오산기지 도착 → 평택 삼성 공장 직행
윤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바이든과 평택공장 동행
尹·바이든, 경제·안보 협력 강조…尹 “포괄적 전략동맹 의미”
바이든 “尹 당선과 취임 축하, 한미 동맹 끌어올릴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평택 삼성 공장을 시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1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주한 미 공군 오산 기지에 도착한 뒤 첫 행선지로 평택 공장을 찾았다.

양국 정상은 공장 시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했다. 이 부회장은 당초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재판 일정이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고 평택공장에서 양국 정상을 직접 안내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4시 54분 평택 캠퍼스에 미리 도착해 취재기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는 등 분주히 현장을 쫓았다. 이어 윤 대통령도 오후 5시 55분쯤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약수를 건네며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라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6시 56분부터 오후 7시 18분까지 22분간 공장을 둘러봤다. 공장 시찰 이후 오후 7시 40분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양 정상과의 공동연설이 진행될 기자회견장에 입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5년전 삼성은 해외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됐다. 저희에게 이 우정은 매우 소중하며 앞으로도 매우 강력한 관계 이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개에 맞춰 오후 7시 42분 동시에 입장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오는 24일 출범을 앞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와 관련한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깊다”며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인력·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對)한국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화답에 나섰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며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한층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IPEF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한국 같은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 래서 우리 전략이 동맹 강화에 초점 두고 있다. 아시아 첫 순방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이번 방한 기간 중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 두고두고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역내 및 세계 안정 평화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끝으로 한미 정상과의 공동 연설은 오후 7시 57분에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은 전 세계 메모리(D램·낸드)의 약 15%를 공급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다.

한미 정상이 삼성 평택 공장을 함께 방문한 것은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이번 평택 캠퍼스 방문은 취임 후 첫 산업현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던 중 양손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식 방문으로, 대통령실은 “평택 캠퍼스 등 5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업계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는 D램·낸드플래시 모두 세계 선두를 유지하는 등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세계 선두권, SK 하이닉스는 3위에 해당한다.

글로벌 시장 현황에 따르면,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점유율 43%로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29%, 미(美) 마이크론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낸드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34%로 1강(強) 구조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다만 설계기업(팹리스)·생산기업(파운드리) 간 분업 구조가 일반적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3% 수준이다. 팹리스는 쿨캡이 18%, 엔비디아가 13% 등 미국 업체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며,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52%)가 독보적이다.

삼성전은 점유율 2위지만 16%에 불과하다. 나이가 주요국들이 미래 국가경쟁력

의 원천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논의하고 시행 중인 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도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핵심적 지위를 유지하고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안보자

산’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영, 손해정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

법인세 왕창 걷었는데 나라살림은 45兆 적자

국세 22.6兆 더 걷혀
법인세 10.9兆↑·소득세 6.7兆↓

지난해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1~3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9000억원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세 증가에도 씹음이 규모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은 45조원 이상 적자가 났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08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나랏빚은 1분기 기준 982조원에 육박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총수입은 170조 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조 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111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 6000억원 많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32.3%로 지난해(결산)보다 4.1%포인트(P) 올랐다.

소득세는 3월까지 35조 3000억원이 걷혔다.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타고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6조 7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상용근로자 수는 92만 9000명(6.3%) 늘었다. 법인세는 31조 1000억원 견했다.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년 전보다 10조 9000억원 증가했다. 1분



사진=한국은행

기 진도율은 41.5%로 이미 40%를 넘어섰다. 법인세는 정부가 2차 추경을 짜며 추계한 올 초과세수(53조 3000억원)의 절반쯤을 차지한다. 증세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2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조 5000억원 더 걷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교통세는 3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5000억원 덜 걷혔다.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상태다. 관세는 2조 8000억원이 들어왔다. 수입이 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과태료·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

(11조원)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잉여금 정부납입액이 4000억원 늘고, 구글엘엘씨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수입이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48조 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었으나 자산시장 호황에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기저효과로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1년 전보다 5조 2000억원 감소했다.

3월까지 총지출은 203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 3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출이 늘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63%)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에 나선 탓도 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4년 Press Lions
Title: Robot
Client: Duracell
Agency: PUBLICIS LIMA

Bronze Lion Campaign
로봇
듀라셀
퍼블리시스 리마